2021년 05월 12일

KIWOOM Daily

■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**Strategist 한지영** 02)3787-5241 hedge0301@kiwoom.com
RA 김세헌 02)3787-5150 saehun.kim@kiwoom.com

미 증시, 기술주 투매현상 진정되며 낙폭 축소

미국 증시 리뷰

11 일(화) 미국 증시는 장 초반부터 기술주 투매 현상 지속, 인플레이션 경계심리 등으로 급락세를 보였으나, 이후 연준 위원들의 완화적 발언 속 저점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하락폭을 축소한 채로 마감(다우 -1.4%, S&P500 -0.9%, 나스닥 -0.1%). 소재(+0.4%)를 제외한 전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, 최근 주가 상승세가 좋았던 에너지(-2.6%), 산업재(-1.4%) 등 경기 민감주들이 차익실현 물량 압박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폭이 컸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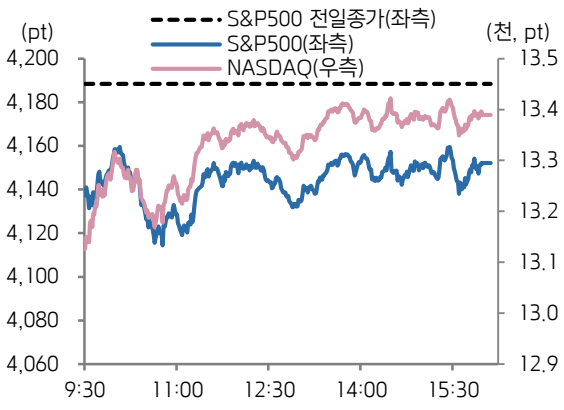
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고용 증가,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, 연준 목표에 고용이 도달하기에는 거리가 먼 상황이며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. 애플랜타 연은 총재와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을 언급하면서도 연준의 완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11 일 잇따른 연준 위원들의 시장 달래기 발언이 시장의 투매 현상 진정에 기여.

미국 증시 평가

여전히 시장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 급등이 추세적일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. 3 년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의 생산자물가(6.8%)로 글로벌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. 또한 3 월 미국의 채용 공고가 812 만건(예상 750 만)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은 인력 시장이 타이트한 수급 상태에 있음을 시사하며, 이는 임금 상승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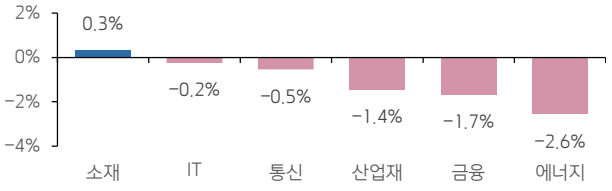
최근 들어 경제 정상화가 되더라도,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면서 경기를 재차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기. 그러나 인플레이션 급등세(4 월 소비자물가 YoY 예상 3.6%)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으므로, 추세적 인플레 급등에 대한 베팅은 시기 상조라고 판단.

S&P500 일중 차트(5월 11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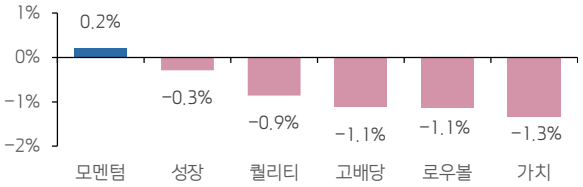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5월 11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5월 11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check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1.27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0.28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09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,119.4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/원 환율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1. 반도체 등 낙폭 과대 대형주들에 대한 저점 매수세 유입 가능성 2. 전일 흥행에 실패한 SK 아이테크놀러지(-26.4%)의 추가 급락 여부 3. 개인 VS 외국인+기관 양강 수급 구도의 지속 여부

한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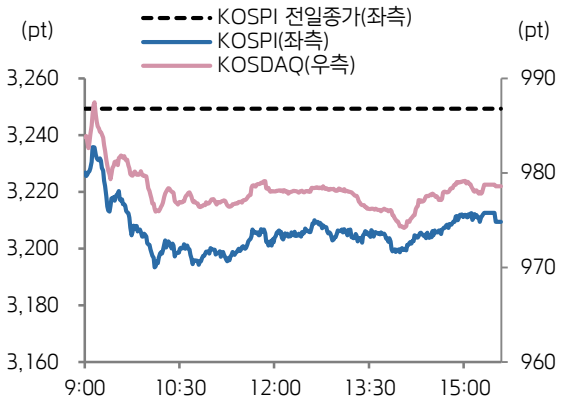
11 일(화) 한국 증시는 전거래일 미국 기술주 급락 충격으로 하락 출발한 가운데, 장 중반에는 코스피, 코스닥 모두 2%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기도 함. 그러나 이 같은 급락세가 과도했다는 인식 속 5 월(~10 일) 수출 호조 소식 등에 힘입어 장 중반 이후부터 반등에 나서면서 낙폭을 축소한 채로 마감(코스피 -1.2%, 코스닥 -1.4%).

업종별로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급락에 따른 전기전자(-2.0%) 포함한 서비스(-1.8%), 제조(-1.5%), 종이,목재(-1.5%) 등 전 업종이 약세를 보임. 또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.3 조원, 1.4 조원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, 지난 2 월 이후 해당 수급 주체 모두 최대 순매도에 나서는 등 수급 상으로도 하방 압력이 심화.

한국 증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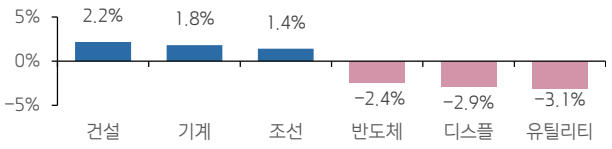
한국 증시는 반도체를 포함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낙폭 과대 인식성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시도할 전망. 물론 현 지수대에서 차익실현 욕구가 상존한 가운데, 미국의 4 월 소비자 물가지표 결과를 둘러싼 경계심리가 부담요인이 될 수는 있음. 그러나 전 거래일 미국 기술주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, 달러화 약세 등은 국내 증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. 또한 대부분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급등을 일시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, 정책 정상화를 조기에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도 시장 불안 심리 개선에 기여할 전망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(5월 11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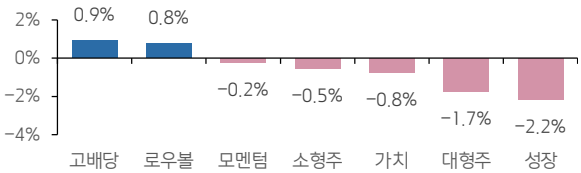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5월 11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5월 11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iwis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고지사항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